

새누리 '상처받은 빈손 회군'...야권은 '공조 균열음'

국감 정상화 여야 특질

협치가 화두였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일주일 동안이나 파행을 거듭한 끝에 4일 정상화 된다.

이번 파행으로 여야 모두 정치적 상처를 입었지만 가장 큰 피해는 파행 국감으로 인한 민생이라는 지적이다.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몰두하면서 20대 국회에 대한 희망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새누리당이 국회로 돌아왔지만 이는 소통과 신뢰보다는 민심의 눈총을 의식한 '불안한 봉합'인 만큼 언제든 국감 파행이 재연될 수 있는 불안한 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 성적표**=이번 파행으로 야권보다는 여권의 상처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새누리 사과·양보 아무 것도 못 얻고 친박·비박 갈등만

민심 비판에 '불안한 봉합'...국감서 사생결단 맞붙을 듯

이정현 대표가 단식까지 했지만 정작 얻은 것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정세균 의장의 사과나 국감 정상화에 따른 야권의 양보도 얻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국감 파행 과정에서 친박과 비박의 갈등 등 내부 균열상만 보였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여당발 '국감 보이콧'과 여당 대표의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던짐으로써 '거대 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고, 장관의 해임 건의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더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소야대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야권도 걸음으로는 파행 정국에서 여권에 비해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내상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감 파행 과정에서 여권을 포용하는 등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장 여당의 복귀가 야권이 주도한 것이 아닌 새누리당 내부 결단에 의한 것이 되면서, 명분 싸움에서 다소 불리해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여당의 국감 보이콧에 '버티기'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의장의 사과 등 '절충'을 주장한 국민의당이 균열을 잘 수습하고 공조를 회복할 것인지도 추후 정국에서 변수로 꼽히고 있다.

◇**지뢰밭 국감**=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정국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우선 야권은 국감을 통해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 등 여권 핵심부와 관련된 가장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어서

전선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3일 농민운동가 백남기 씨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에도 합의하며 대어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거야(巨野)'가 수적 우세를 앞세워 민생 대신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우병우 수석 문제 등에 집중할 경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생 국감'에 전향하겠지만 야권이 정치 공세에 집중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조선성 구조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무상보육 예산, 한일 위안부 협상 등도 언제든 국감 파행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지뢰밭이 산재해있다.

이번 국감은 내년 대통령선거 정국을 앞둔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야가 사생결단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감 초점-전남도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불참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파행 속에서 맥없이 치러졌다. 호남에 경쟁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야당의 선명성을 보이지 못한 채 송곳 같은 질문없이 전남도에 대한 '침찬 릴레이'를 이어갔다. 국감 국회의원 상당수가 전남도 고공무임, 군수 등을 지낸 점도 '밋밋한' 국감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원장과 더민주 의원 5명, 국민의당 의원 3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내 농업인력 年 8만 2000명 부족 '전국 최다'

전남도내 농업인력이 연간 8만2000여 명이나 부족해 전국에서 농업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농·귀촌 가구 가운데 농사를 짓는 가구도 극소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농업 분야 외부 고용 인력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30만6965명의 농업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남은 8만2000명의 농업 인력을 지역 내에서 구하지 못하고 타지역에서 고용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전남의 월별 부족 인력은 11월이 2만29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월 1만6150명, 8월 1만2500명, 5월 6850명, 6월 3450명, 2월 3125명, 4월 2125명, 7월 1900명, 3월 1625명, 1월 1625명, 12월 500명 순이다. 전국 지역별 농업 인력 부족 현황은 전남이 8만2000명으로 가장 심각하고, 경북 6만9325명, 제주 4만700명, 경남 3만3530명, 강원 3만630명, 충북 2만5742명, 전북 1만3523명, 경기 9495명, 충남 2020명 순이다.

2015년 전남의 귀농·귀촌 가구수는 총 3만1089가구지만, 이 중 실제로 농사를 짓는 귀농 가구는 1865가구에 불과해 전체의 6%에 그치고 있다.

전남 식품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전국서 가장 낮아

전남의 식품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전남 농수산물의 가공·유통 시스템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제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 2014년 식품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는 81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4년 식품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전국 평균은 1억4800만

원으로 최저를 기록한 전남은 평균의 절반이 조금 웃도는 54.7%로 조사됐다. 농업 지역 부가가치는 경남 1억6400만원, 경기 1억4900만원, 강원 1억4800만원, 충북 1억9200만원, 충남 1억4500만원, 전북 1억2300만원, 제주 1억2000만원, 경북 9240만원, 전남 8100만원 순이다.

같은 기간 도시 지역은 대전 2억5300만원, 광주 2억2810만원, 울산 2억2570만원, 인천 2억830만원, 서울 1억6650만원, 세종 1억3690만원, 대구 1억3170만원, 부산 1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1억원 이상 고소득 어가 3년새 14% 줄어

전남도의 1억원 이상 고소득 어가가 3년 새 1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은 지난달 30일 전남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전남도의 1억원 이상 고소득 어가는 2012년 2258세대, 2013년 2234세대, 2014년 2073세대, 2015년 1949세대로 매년 줄어 3년 새 13.7%(309세대)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득별 어가수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0.9%(342세대)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0.6%(13세대)감소했다.

반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24.0%(44세대), 10억원 이상은 6.9%(2세대) 각각 증가했고,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2012년 183세대에서 2013년 329세대, 2014년 335세대까지 늘다가 지난해 다시 289세대로 감소했다. 권 의원은 "전남도 내 고소득 어가가 3년 새 13.7%나 감소한 것은 적조, 폭염, 유류유출사고 등의 원인으로 있지만 인프라, 수산물 소비 둔화 측면도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단식 중단 이정현 문병하고

정세균 국회의장 호주 출국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예정대로 미타(MIKTA) 회의 참석차 호주로 출국했다.

애초 정 의장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로 촉발된 국회의 '보이콧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미타 회의 참석 일정을 취소도 불사하겠다고 국회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전날(2일) 전격적으로 오는 4일부터 국회일정 복귀를 선언하고 이정현 대표도 단식 6일 만에 중단을 선언하면서 정 의장도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전날 새누리당의 국회 복귀 선언을 전해 듣고 "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의장은 또 이날 출국에 앞서 단식 투쟁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문병했다. 국회 관계자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여의도 성모병원을 찾아 20여 분 동안 머물렀다.

정 의장 일행은 가족이 지키고 있는 병실을 방문해 이 대표를 만나고 조속히 쾌유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일 서울 중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48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왼쪽 두번째부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현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축하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지도부 개천절 경축식 조우...해빙기류속 신경전 팽팽

여야 지도부가 3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서 만났다. 국회가 정상화된 뒤에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마주한 것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축식 행사장에 나란히 참석, 간간히 대화를 하면서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행사 시작 전에는 귀빈실에서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3당 지도부는 서로

"수고했다"라고 인사를 나누면서 격려했다고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가 박 비대위 원장에게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회복 중인 이정현 대표를 함께 문안하자고도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이처럼 여야관계에 해빙 조짐이 감지되는 듯했지만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은 여전했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정 원내대표는 경축식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힘자랑을 한 해 보려고

명분 없이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였다"면서 "차리과정에서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다 아시는데, 국회의장 문제로 몰아가면 안 된다"라고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국회가) 정상화됐으면 이제 존경의 대상인 의장에 대한 비판도, 모든 고발도 모두 취소하고 더 잘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하나투어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 062) 228-1199

하나투어 신혼여행 박람회

허니문 박람회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 기간 : 2016. 10. 8(토) ~ 10. 9(일)

이달의 추천 여행지! 하와이	[프리미엄 로드샵] 하와이 추천상품 안내 하나허니문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총장점] 단독 혜택!</p> <p style="font-weight: bold;">① SM면세점 모바일 선불카드 2만원 권 제공</p> <p style="font-weight: bold;">② 알로하 테이블 식사권 제공 \$40상당</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e91e63;">캐주얼 HHW200_G</p> <p>에스톤 와이키키 오아후 6일</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e91e63;">1,930,000원~</p> <p style="font-size: 0.8em;">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택경비 있음</p> <p>▶ 매주 토/일/월</p> <p>▶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p> <p>▶ 파파라차 + 특식포함</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e91e63;">클래식 HHW200_Y</p> <p>아웃리거 와이키키 오아후 6일</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e91e63;">2,340,000원~</p> <p style="font-size: 0.8em;">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택경비 있음</p> <p>▶ 매주 토/일/월</p> <p>▶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p> <p>▶ 얼리버드 / 최대 40만원 할인</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e91e63;">캐주얼 HHW204_F</p> <p>하얏트 플레이스 오아후 6일</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e91e63;">2,160,000원~</p> <p style="font-size: 0.8em;">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택경비 있음</p> <p>▶ 매주 토/일/월</p> <p>▶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p> <p>▶ \$350 상당 아웃셋 투어 포함</p>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안전보험료, 관광상품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 지불해야 합니다. ■ [여행상품 내역]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인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로하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상품] 여행상품의 변경사항은 여행일정의 사전 통지를 받습니다. ■ [관광사]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휴일 2급호텔 이상 2인 1실/고동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지원/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일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ur.com)를 참조해 주세. 해외 여행 단체별 국가 지정 여행 1) 여행 유약 2) 여행 자재 3) 필수 권고 4)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